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dentity of Fire Science and Possibility of Convergence Study

Sang Il Ryu, Eun Byeol Ko, Gi Geun Yang**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 460 Iksan-daero, Iksan, Jeonbuk, Korea

Abstract

Although the fire-fighting has a long history, the academic history of fire science which aim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fire phenomenon from scientific standpoint dates back to very recent times. It was not until late 1980s that the fire science began to be studied and taught as an academic part in the universities nationwide. Since 1990s and early 2000s, the departments related to the fire science began to open in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he academic identity of fire science is premised on the fire phenomenon, and is determined by whether it provides theoretical framework for systematic/scientific analysis and explanation of such phenomenon to some degree. To develop a study into an independent study, a paradigm is needed which may be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the members of academic group commonly understand and share. This researcher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after looking into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academic paradigm and identity of fire science. Particularly,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greatest characteristics of fire science from the convergence study and intend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study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Key words: fire science, identity, academic paradigm, convergence study

국문초록

소방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소방현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소방학의 학문적 역사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소방학을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며,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초가 되어서야 많은 대학들에서 소방 관련학과의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소방현상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어느 정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집단의 구성원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본 논문은 2013년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Tel. +82-63-850-6399. E-mail. withgg@wk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r. 10, 2014 / Revised: Mar. 20, 2014 / Accepted: Mar. 25, 2014

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그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방학의 가장 큰 특징을 융합학문에서 찾고 있으며, 그 발전방향 또한 융합학문의 가능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소방학, 정체성, 학문 패러다임

1. 서론

소방학은 소방현상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소방현상의 핵심주체인 불과 소방 활동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즉, 인류는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의 이용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편리하게 바꾸어 놓기도 하였지만, 화재로 인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약 10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 되고 있다. 소방은 인류가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1].

이렇듯 소방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소방현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소방학의 학문적 역사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소방학을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며,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초가 되어서야 많은 대학들에서 소방 관련학과의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소방현상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어느 정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적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 주제가 있어야 하고, 연구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며,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하며, 대학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야 하고, 학문적 공동체로서의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안전욕구가 증대하면서 소방학의 고유한 연구 주제들이 형성되고 있고, 연구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도 발전하고 있어, 다른 학문과의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학과가 전국적으로 80여개에 이를 정도로 양적인 팽창은 하였으나 여전히 소방학이라는 학문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학회의 활동은 부족하고, 학자 간 학문의 교류 연구가 미미하여 소방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그 정체성을 정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이를 통해 소방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방학의 가장 큰 특징을 융합학문에서 찾고 있는데, 융합학문으로서의 가능성 또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학문적 패러다임

오늘날 어떤 학문이 하나의 정상학문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토마스 쿤(Thomas S. Khun)이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저술에서 사용한 개념인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되어 진다[2]. 쿤에 따르면, 과학사의 특정한 시기에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 모범적인 틀이 패러다임이다[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각 학문 분과 마다 전공학자들은 비슷한 시각을 가지게 되고 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4]. Khun에 따르면 “과학사회의 특정한 시기에는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는데, 이 모범적인 틀이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과학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3].

결국 패러다임이란 한 학문 내에서 현재의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과거의 연구업적인 이론, 표준, 응용, 그리고 다루어야 할 또는 다룰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방법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학문이 패러다임을 갖지 못할 때에는 무엇을 연구해야 하며, 어떤 분석단위를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이론을 세워야 하고 어떤 자료를 수입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기본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학문적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이와 반대로 패러다임이 확립된 경우에는 확립된 구조 내에서 체계적인 심오한 연구가 진행되어 관련학문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게 된다[2].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항상 고정불변의 것, 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쿤이 말했듯이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인 것이다. 따라서 소방학이 하나의 독자적 학문영역을 갖는 정상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소방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과 이론이 제시·개발되어야 한다.

2. 학문적 정체성

한 분야의 학문이 독자적인 분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학문의 정체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아이덴티티”와 유사하다.

하나의 학문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며, 셋째,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하며, 넷째, 대학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야 한다[1][5][6].

따라서 소방학의 정체성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고찰되어 질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소방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소방학의 정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나,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성룡은 정책과 학문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구성과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방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개척 상태이고, 소방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학문적 관심, 연구주제, 탐구와 논의 방식 등이 서로 다르거나 이로 인하여 서로간의 학문적인 의사소통, 이해와 토론이 어려울 때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다[4].

소방학의 패러다임 정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방학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과학기술 분류 표준” 체계에서 하나의 학문분류로 코드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련 학문 공동체 및 학회의 연구기반 확립, 소방관련 학문의 공동 연구 및 표준 공통 교재의 개발 활용, 소방관련 교과목의 교육훈련 및 시험과목 채택 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된 학문이 정책의 지침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정책과 학문의 연계성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은·류상일은 소방학정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에서 소방정책론의 바람직한 정립방향을 논의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방학에서 소방정책론 정립의 필요성과 소방정책론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소방정책론 구성의 방향을 총론적 내용과 각론적 내용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뒤 소방정책론 정립을 통한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방정책론의 총론적 내용으로는 한국소방정책의 발전과정, 소방정책의 특성, 소방정책 형성과 참여자, 소방정책 결정이론, 소방정책 집행, 소방정책 평가를, 그리고 소방정책론의 각론적 내용으로는 화재예방 및 경계정책, 화재진압정책 및 화재조사, 구조 및 구급정책, 대국민 안전예방정책 및 소방보험정책을 제시하고 있다[7].

III.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

최성룡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소방학은 학문의 공동연구를 위한 학회의 활동은 물론, 학자간 학문의 교류 연구가 미미하여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4]. 그러므로 소방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하고, 어떤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의와 관련하여 첫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있는지, 둘째,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지, 셋째, 인접 학문과의 개념적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넷째, 대학에 소방학을 가르치는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학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는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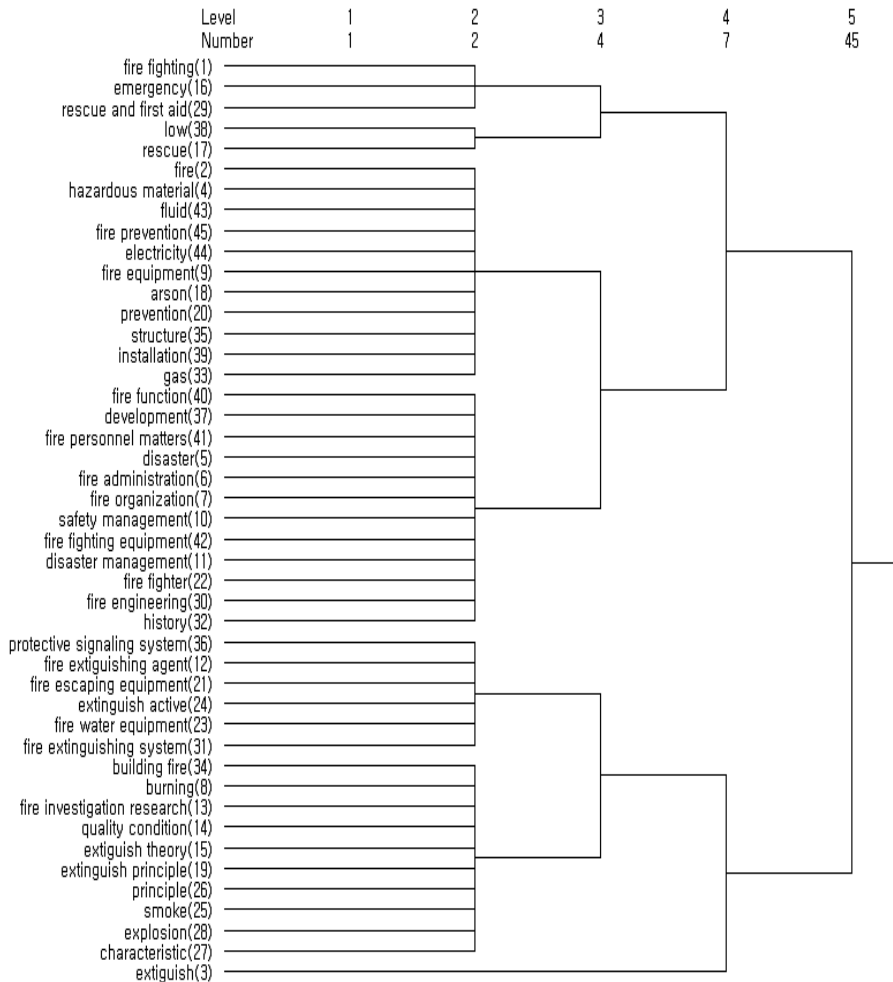
1.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

독자적인 학문분과(discipline)를 이루려면 적어도 연구대상(주제)의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학문분과의 연구대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발전하기 어렵다. 연구대상은 핵심 개념들에 의해 구별된다[7].

소방학의 연구주제는 소방현상 및 소방 활동과 관련된다. 소방 활동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소방 활동에 관한 최초의 규정과 기관은 금화령과 금화도감으로 볼 수 있어 그 역사가 꽤 길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현대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고 1958년 3월 소방법을 제정 운영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소방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방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수요가 증대되면서 인접 학문에서 다루지 않거나 다루기 어려운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성룡이 그의 저서 「소방학 총론」에서 제시한 6개 대분과 68개 소방과목들이 다루는 연구주제가 그것이다[9]. 예를 들면, 화재조사, 화재진압, 소화약제, 연소, 위험물, 화재보험, 방화심리, 소방시설, 소방장비, 소방산업, 구조, 구급, 소방정책, 소방조직, 소방인사, 소방재정, 비교소방, 소방관계법 등이 소방학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소방학의 고유한 연구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성룡(2007) 「소방학 개론」, 최진중(2004) 「소방학 개론」,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회(2012) 「새로운 소방학개론」, 류충(2012) 「소방학개론」, 정기성 외(2011) 「소방학개론」, 정경문·강윤진 외(2013) 「소방학개론」, 조동훈(2013) 「소방학개론」, 한국소방방재연구원(2012) 「소방학개론」, 김수영·김은경(2013) 「소방학개론」, 이정일·박희순(2011) 「소방학개론」 등의 소방학개론 저서의 편성 내용을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의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1> Dendrogram by 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유사한 지위(position)을 점하고 있는 행위자들을 그룹화하고, 그 그룹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10]. 이런 맥락에서 소방학의 연구주제들 간의 구조적 등위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소방학의 연구주제 내지 내용을 특성별로 그룹화 하여 그 성향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 소방학의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는 “소방행정”, “화재예방 및 소방공학”, “화재 및 소화”, “소방설비”, “구조 구급”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다.

2.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

이러한 소방학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타 다른 인접학문들도 그렇듯이 소방학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고

유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다른 인접학문들에 개발된 이론들을 가져다 사용하거나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방학은 하나의 응용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공학 등과 융복합된 융합학문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은 향후 많은 관련 이론들이 개발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학은 “연소 및 소화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적,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방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방학 연구에 있어서는 연소 및 소화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소방공학 이론과 소방행정을 중심으로 소방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있을 것이다.

3. 뚜렷한 개념적 경계

하나의 학문이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다른 인접학문과의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학문의 패러다임은 여러 학문들 간의 학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것이 장려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학은 행정학(정책학), 법학, 심리학, 건축학, 물리학, 화학, 전기·기계공학, 안전공학 등과 융합하면서도 뚜렷한 개념적 경계를 가진다.

소방학의 다른 학문과의 개념적 경계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과목의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룡(2008: 170)은 학자들의 과학의 구성요소에 바탕하여 소방학의 구성요소를 “불(화재)을 물·시설·장비인력·기술 등으로 예방 또는 제어하고 인명을 구조·구급하려는 모든 과정과 수단·방법 등 즉, ‘소방 현상’을 연구대상(영역)으로 하는 소방학은 「① 소방지식의 형성과 습득과정, ② 위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과학적 소방지식, ③ 과학적 소방지식 획득을 위해 과학의 과정을 선택하는 소방학자, ④ 그 소방 학자의 가치관 및 가치 체계와 태도」라는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4].

<Table 1> Range of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for Firefighters Entrance Examination

field	
fire organization	fire organization
	fire function
disaster management	the concept of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combustion theory	introduction to combustion
	smoke and flame
	introduction to explosion and classification
fire theory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fire
	quality condition of building fire
	quality condition of hazardous material fire
	fire investigation research
extinguish thory	extinguish principle
	fire extinguishing agent
	fire protection system

4. 대학의 전공학과

소방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소방관련 학과들이 있어 이를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관련 학과는 전국에 80여개 대학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 등으로 개설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소방학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1986년 경원전문대학과 우송공업대학에 소방관련 학과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1991년 이후에 개설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근래에서는 대학원 과정에까지 소방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대학과 대학원에서 소방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5. 관련학회 활동

소방관련 학회로는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정책학회, 한국화재조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방재학회 등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학회 활동은 아직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학회 차원에서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할 시점인 것 같다.

IV. 소방학의 발전 방향

위에서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 논의를 하면서 늘 소방관련 학과 또는 소방관련 학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자나 소속 학회 등이 하나로 정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소방학은 그 내용과 성격상 다 학제적 학문 분야의 혼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및 공학의 혼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학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발전가능성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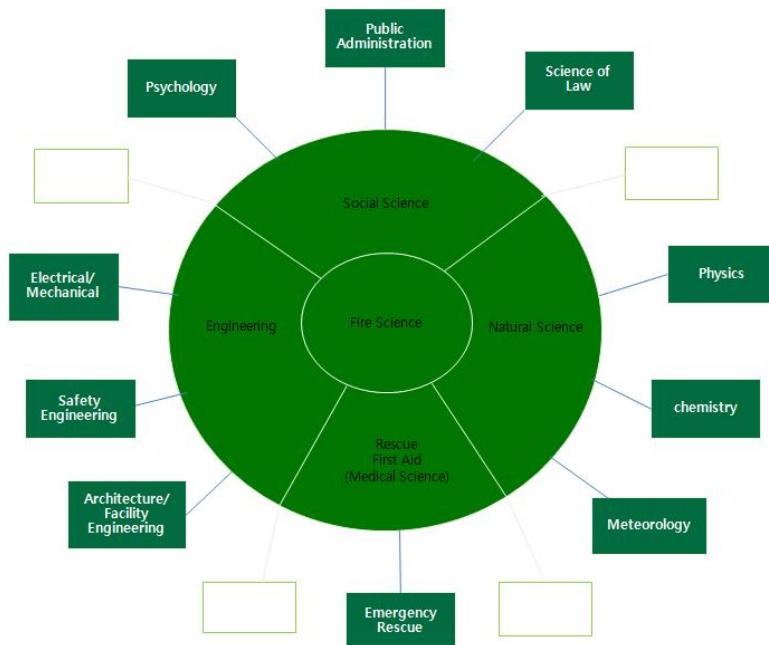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하며, 셋째, 개념적 경계가 뚜렷해야 하며, 넷째, 대학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방학은 그 연구의 주제 및 연구 내용상 단일 학문의 고유한 연구주제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소방학의 연구 주제와 연구내용은 행정학(소방정책, 소방조직, 소방인사, 소방재정, 소방자치 등), 법학(헌법, 소방행정법, 소방관계법규, 형법 등), 심리학과 윤리

학(소방심리학과 소방윤리학 등) 등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물리학, 유체역학, 화학 등), 그리고 공학(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건축공학, 소방시설공학, 소방장비공학 등)의 연구 주제와 연구 내용 중 소방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이 소방학의 주요 연구 주제와 연구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과 관련된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주제이면서도 여러 학문단위의 융합적 연구주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과거 소방학 중 소방행정 분야의 학문적 영역은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양틀 속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소방행정이 갖는 주제의 체계적 정리나 해석도 부족했으며, 개념적 경계 또한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라는 연구 주제의 등장과 이 주제에 대해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소방행정학과 소방공학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소방학 연구 경향과 대학의 소방학 관련 전공 커리큘럼 등을 분석해 보면, 크게 소방행정학 중심의 연구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소방행정학과(대부분 4년제 대학으로 전국적으로 10여개 정도)와 공학 또는 안전관리 중심의 소방방재학과 내지 소방안전관리학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소 및 소화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학적,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방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인 소방학은 기존의 특정 학문 단위만으로는 제대로 된 소방학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융합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Fig 2> Convergence of Fire Science Study

2. 전문직업학문으로서의 소방학의 발전가능성 모색

오늘날 소방행정은 소방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전문화)로 인하여 전문직업적 성격을 띠면서 전문적인 기술과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과학적 지식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소방업무의 수행에는 사회과학으로부터는 행정학·법학·재정학 등의 이론이 원용되어야 하고, 자연과학으로부터는 건축학·물리학·화학·전기공학·기계공학 등의 주요이론들이 망라되어야 하는 융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방학과 직업의 관계도 위에서 논의했던 사회과학 중심의 접근과 공학 중심의 접근을 하는 대학들의 전공 소속에 따라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융합학문으로서의 매력을 십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소방행정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소속 전공에서는 소방공무원 중심의 직업 찾기를 하고, 소방방재학과 내지 소방안전공학과와 공학중심의 전공에서는 소방산업기사, 소방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업 및 산업체로의 취업을 대부분 준비한다.

3. 학문공동체 활성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 정립에 어려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학문공동체 형성의 어려움이다. 이는 소방 관련 학과의 전국교수모임에서도 드러난다. 즉, 소방행정, 소방방재, 소방안전 등 여러 전공의 학과교수들의 모임이다 보니 늘 소방 ‘관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 관련 학회 구성원들의 학문적 소속이 다르다보니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경찰청과 경찰학(경찰행정) 전공 교수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데 반해, 소방방재청과 소방관련 학과 소속 교수들 간의 관계는 소원한 편이다.

그러므로 소방학 전체의 어떤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학문공동체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래야만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 정립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는 패러다임의 의미를 소방학과 관련지어 소방학 패러다임으로 재정의 하여 본 “소방학 전공자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그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 학문연구분야분류표에의 소방학 분류

소방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4호)상으로는 SB. 정치/행정의 SB12 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의 SB1212. 소방/방재로 분류가 되어 있어 소방학의 정립에 진보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학문연구분야분류표에는 여전히 빠져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 한국연구재단의 학문연구분야분류표상으로는 사회과학(대분류)의 행정학(중분류)의 분야별행정(소분류)의 (경찰행정처럼) 소방행정(세분류)으로, 그리고 공학(대분류)의 안전공학(중분류) 또는 복합학(대분류)의 학제간연구(중분류)의 어딘가에 방재로 분류되어야 한다. 아니면 소방학을

복합학의 어딘가에 분류하여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래야만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방학이 학문연구분야분류표에 분류가 되어 진다면 소방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학문적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결국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이 수월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21세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사회의 구축이다.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세계화로 인한 위험의 이동성 및 상호 의존성 증대, 재난·안전 기술의 발전으로 대응 능력 증대,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해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재난안전 환경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있어서 소방조직과 소방정책도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화·고층화·밀집화·지하심층화 및 가스·위험물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1].

따라서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과 정체성을 정립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방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논의되었듯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 논의는 최성룡(2008)과 이재은·류상일(2009)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4][7]. 특히 이재은·류상일(2009)의 논의는 소방정책론에 한정되어 있어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최성룡(2008)의 연구가 유일하다. 앞서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최성룡의 연구는 시론적 측면에서의 연구이고, 연구시점이 2008년이기 때문에 그 후로 많은 소방 관련 학과와 학회가 생겨났고, 또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소방학 정립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소방학개론이 많이 출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와 같이 다시금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가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for Department of Fire Science. 2008.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Seoul: Donghwa Technology Publishing Co.
- [2] Choi, S. W. 2007. A Study on the Paradigm of Police Science and It's Developmental Issues. *The Korean Journal of Police Science*. 2(1): 45-71.
- [3] Kuhn, Thomas S. and M. J. Kim. 200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Seoul: Kachi

Publishing Co.

- [4] Choi, S. R. 2008. A Study on Scientific Paradigm Formation and Identity Establishment of Fire Service Science: Focused on Liaison Between Policy and Stud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22(3): 162-171.
- [5] Park, L. M. 2002. The Identity of Learning, Boundaries and Subjectivi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70-93.
- [6] Choi, J. T. and S. H. Hyun. 2006. *Fire Service Administration*. Seoul: Donghwa Technology Publishing Co.
- [7] Lee, J. E. and S. L. Ryu. 2009. *A Prelimina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Fire Science: Focused on Fire Policy*. Proceedings of 2009 Conference, The Korea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94-325.
- [8] Park, C. M. 2008. *The End of Public Administration?: Identity Crisis and Vicious Circle*. Proceedings of 2008 Spring Annual Conferenc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481-496.
- [9] Choi, S. R. 2007.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Education Culture Institute.
- [10] Ryu, S. L., M. C. Lee, S. H. Jung, and H. K. Kang. 2012. The Trends of Crisis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8(3): 105-120.
- [11] Yang, G. G. 2010. Fire Service Policy Issues for Building of Safety Society. *Journal of Korea Security Administration*. 7(2): 111-135.

참고문헌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 [1]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2008. 소방학개론. 동화기술.
- [2] 최선우. 2007. 경찰학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연구. *경찰학논총*. 2(1): 45-73.
- [4] 최성룡. 2008.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구성과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2(3): 161-171.
- [5] 박이문. 2002. 학문적 정체성, 경계선 및 주체성: 국문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국문학*. 131: 70-93.
- [6] 최종태, 현성호. 2006. 소방행정론. 신광문화사.
- [7] 이재은, 류상일. 2009. 소방행정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소방정책론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8] 박종민. 2008. 행정학의 종언인가? : 정체성 위기의 악순환.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9] 최성룡. 2007. 소방학개론, 교육문화연구원.
- [10] 양기근, 이주호, 류상일, 이민규. 2013. 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Ⅱ: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9(1): 53-68.
- [11] 양기근. 2010.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정책의 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7(2): 111-135.

류상일: 충북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2007년 8월),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난관리, 소방행정, 재해구호, 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저서로는 재해구호복지론(2012, 공저), 소방행정학 개론(2011, 공저),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2007)”,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사례를 중심으로(200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2008)”,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관계(2009)”,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방정책론 정립방안(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2011)”,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2012)”, “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분석Ⅱ: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2013)”, “소방방재청장의 정책 가치지향을 통해본 재난관리정책의 변화추이(2014)” 등이 있다(samuel@deu.ac.kr).

고은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를 2013년 2월에 졸업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dmsquf031@hanmail.net).

양기근: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제목: 위기관리 조직학습 체제에 관한 연구, 2004)를 취득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소방정책,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갈등관리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재해구호복지론(2012, 공저), 소방행정학 개론(2011, 공저), 한국의 재난현장대응체계(2009, 공저),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Ⅱ: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201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급식 갈등사례를 중심으로(2013)”, “구지역 재난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2013)”,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조직의 구조적·행태적 변화가 조직몰입 및 조직역량에 미친 영향: 보령화력발전소의 화재사고를 중심으로(201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2012)”,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연구: 통일비용 수준을 고려한 Dynamic Modeling 예측기법을 중심으로(2011)” 등이 있다(withgg@wku.ac.kr).